

사설

다시 시작하는 각오를 다지자

대학은 안정하다. 등록도 마무리되었고, 대동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다. 학우들은 무덤덤한 얼굴로 벌써 기말고사라도 준비하는지 우중충한 도서관 출입에 분주하다.

정말 오늘도 대학은 안정한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주저없이 그렇다하고 수긍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동국인의 타성적인 무관심과 무비판적인 현실순응주의의 태도만이 두드러지게 다가올 뿐이다.

두주지 이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던 지난 87-88의 학자부 기치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때 동국인의 각 주체들이 함의하고 다짐했던 기억들은 무슨 악몽이나 되는 것처럼 다들 쉬쉬하고 무호화하고 피기해버리고 만 현실이다. 그러나 담담한 학이 접어들어 등록과정을 통해 담보해내고자 했던 학원 자주의 틀 속에서 민주학사예의 학생참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성과들은 미미할 뿐이다.

이후 등록과정에서 제기된 사람들의 항쟁을 살펴보자. 소수 3% 단위부족이던 학교당국의 무책임성과 단위별 학생주체들이나 지도교수·학생들의 이해부족 또는 소심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묶여 발전적 모습으로 미처 계획조차 미비한 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과연 소기의 효과적인 집행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 편성의 첫걸음이라고 볼때 아직 그 그런 별미를 줄 수 없다는 일부 보직교수들의 권위주의이거나 피해의식은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부분은 통발위건설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양이다. 이미 재단은 재단과 학교당국으로 통발위를 구성·발족하였다. 학생들의 참여 여지가 배제된 채 재단의 실적과 수익사업등 재정문제와 장단기학교발전방안이 강구될 조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학생들과 합의된 정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후속적인 준비태세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도 그렇지만 학교당국의 성의의 부족이 전향적인 지도노력이 없었음도 아닐까는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학교 발전·학교당국·재단이 공유할 수 있는 틀과 내용을 가지고 학교의 발전과 발전을 위한 조직 건설이 추후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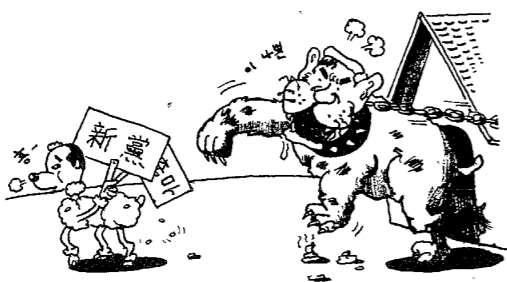
이것이 교과위 활성화 사안도 그렇다. 이미 새학기 신규교수 초빙작업이 시작되었고 새학기 교과담당자 결정과 수강신청도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단위별 교과위원 중앙 교과위의 대응방안은 떠오르지 않고 있다.

학교당국과 학생 사이에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줄다리기가 하고 공방전의 모습만 보여주고 합의 사항 문건만으로도 마무리하는 일련의 도식적 학습들은 점차 식상하고 마침내 동국발전이라는 크나큰 깃발 아래서 떠나고 말 것이다.

동국발전의 주체는 바로 우리모두이다. 재단과 학교당국의 책임이 일차적이긴해도, 교수·학생의 고요한 의식과 통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화합과 단결의 한마당을 일구어나갈 새 모색이 절실하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절박한 눈물이 있어야겠다.

東國漫評

박성민



뭐 물어봐가 뭐 물어봐가 니무란다더니...

열린글터

방치된 기념식, 기우뚱한 동국전통 떠올려
동약사랑으로 쓸모있게 관리하자

'동국대학 공사기념 단지 4천2백 82년' 사별인이라든, 아니 후문에서 학원 관으로 오르는 길을 자주 이용하던 동약인이라든 이렇게 한자표기된 기념식이 길일편에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주 보면서도 그것이 기념석인지, 또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학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기념석은 말 그대로 본교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토건회사가 만든 것인데, 서기로 계산하면 1949년으로, 1906년에 개교한 본교가 이자리로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 43년이라는 세월동안 이곳을 지켜온 셈이다.

이후 건축 당시 정문이었던 이곳에 버섯이 서있던 것이 정문이 후문으로 바뀌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방치되어 지금은 한쪽구석에 쳐박혀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겉 겹 새겨졌던 글씨가 벗겨지고, 6·25전쟁의 상처(?)인듯한 커다란 흉도 남아 오랜 세월 험하게 닳아진 흔적이 역력하다. 또 그 위치조차 불안정하여 그냥 내팽개쳐진듯한 상태로 비스듬히 누워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당국의 무책임한 관리와 학우들의 무관심이 주요한 이유라고 본다.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만큼 본교의 오래된 전통성을 다스려야 할 수 있는 단적인 근거가 된다.

그럼, 왜 우리들은 이런 저급하고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비판적, 자주적, 능동적 자세로 대치하지 못했는가? 우리의 이상마저 슬며시 휘둘러 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농수산물을 직판장과 알뜰시장 물물교환시장이 은방울 학생들의 차가운 외면속에 파란만 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농어촌의 가슴아픈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농어촌은 다시 한번 버림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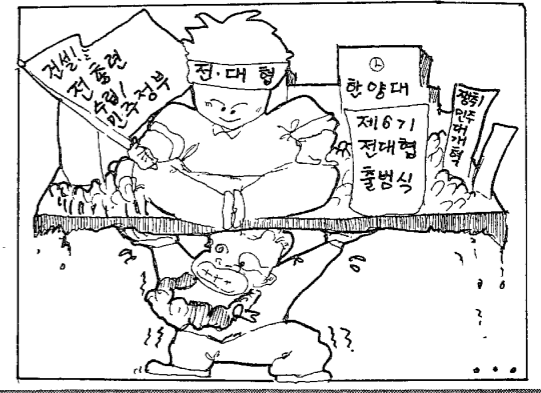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대 만평

박정진 (아간강좌 무역학과)



지나고 동대신문을 읽고

이과대 공간문제도 심각

지난호 동대신문 5면에 실린 평판 공간부족 해결책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여기서는 이과대 공간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이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관을 과학관으로 배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실 이과대의 경우도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매 주 화요일 본교대 전용 강의실이 있는 본관으로 전공필수 과목 '실해석'을 들으러 간다.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 '수치해석'의 경우, 어쩌다가 전실실이 아닌 강의실을 이용하여 하면 30분은 강의실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나마 수업시간 얼마후 다른 과 학생들이 수업함을 들으러 온다.

아마 공간문제는 우리 과뿐 아니라 문·이과대 학생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평판관 화장실, 지붕, 창들의 문제는 더이상 언급 하지도 않겠다.

되는 이 기념석을 더이상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이전것은 어떻게? 지금의 위치로는 적격적인 관리와 관심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교의 상징적인 명칭인 이과대시 크크리상설, 또는 지금 증진중인 불상상에 새단장을 해

대동제, 여전히 퇴폐·향락적 건전한 놀이문화로 전환해야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농어촌은 다시 한번 버림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대동제가 쌍쌍파리에만 집착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 축제의 초기단계였던 쌍쌍파리는 이제 좀 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과거의 문화회 아닌 현재·미래의 문화로 발전해 학생들, 옛것을 재현시켜 함께 할수있는 놀이문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대동제인 것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태선 아주머니

본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탕전실에서 1년째 근무하시는 김태선(43)아주머니는 오늘도 한여름 날씨만큼 후덥지근한 탕전실에서 호차 약 달이기에 여념이 없다. 탕약 특유의 향내가 풍기는 탕전실은 강의실 3분의1정도 크기인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웅기 약탕기 28개가 그림자나 보던 화덕위거나 아니라 현대식 가스불위에 놓여있었고 벽면 한 구석에는 탕전을 맡긴 사람들의 이름이 칠판 가득히 쓰여져 있다. 탕약을 약을 짓는 사람, 달이는 사람, 먹는 사람의 정성이 합쳐져야 약 효험을 볼수있다고 말씀하시는 김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은 인리부 도중에도 바쁘게 움직인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약을 태워 약기운이 소실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1%의 약성분과 99%의 정성이 효험있는 탕약을 만든다며 약 달이는 사람의 정성을 중요시 했다. 항상 환자가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덥고 고열스럽지만, 정성껏 탕약을 달이는 김아주머니의 손길. 이는 한방의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과정중 하나이다.

(박성민 기자)

목욕골

축하합니다

무요·자영누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6일은 일본과에서 가장 예쁜 내가 태어난 날이다. 축하해라. -유정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처 챙겨주지 못한 인도철학과 91학번 정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힘찬 생활을 만듭시다. -민사91들

봉준선배님 출감을 축하드립니다. -이리리92학번일들

미영이형의 대거전 재건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세요! -34기일들

자축합니다. 대동제기간동안 국문과 사회화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드립니다. And 호밀은파! 저분수에 파트너저 저 죽어도 안 잊을게요.(부드득) -92호애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제기간동안 민사기획팀에 수고하신 후배님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족사연구회91일들

대동제기간중 이정태학형의 명치급마련을 위한 주결정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영학과, 사후회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통합해주시는 일반학우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정태에게 작으나마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민중민주결정영과 전진의 이름 학술부장

수원대학 갔다 오시고나 수고하셨습니다. 7인의 결사대는 언제나 사랑할게요.

동약! 광장

사상·조직적 토임은 요원한가

남한 현대사의 40여년은 의제와 군부 그리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세력과 전체 민중간의 대립, 갈등 그리고 현실적 힘의 역관계에 근거한 정치부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은 그것의 향방을 결정짓는 선거투쟁의 시기이다. 선거투쟁은 한편으로 지배자들의 권력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 민중들이 제한적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확장·실현시킴으로써 정치활동 공간과 변화의 여지를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는 격극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 가까운 예를 지난 88년 4·26총선과 3·24총선에서 볼 수 있는데 4·26에서 창출된 여소야대정국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부문운동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고 이번 총선에서의 형식적 여소야대, 내용적 여소야대 등 그동안의 침체와 체념의 끝을 무너뜨리면서 진정한 인간민주정부를 갈망하는 모든에게 새로운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이후 92-93년 권력 재편기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또한 주체적 역량의 강화여부를 떠나 객관적 조건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정국을 올바른 선거투쟁의 관점에서 승리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투쟁의 적극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대선을 앞둔 민족민

주세력의 자기점점이라는 의미에서 87년 대선과 3·24총선을 간략히 평가하였다.

87년 대선과 3·24총선

87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국한해서 살펴본다. 당시 김대중후보를 지지하는 조진부 비판적 지지입장과 야권후보단일화입장, 백기완 독자후보론 모두의 공통점은 대통령선거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냐'하는 사실, 즉 후보개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 보았다는데 본질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풀어서 말하면 이들은 운동의 주체인 민중을 선거투쟁의 주체로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선거투쟁을 민중운동을 고양시키고 전국민의 민주투쟁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보지 못하고 선거자체에 매몰되어 민중을 동원의 대상, 즉 선거의 표표로 보았을 뿐이다. 또한 이들은 의제지배하 남한사회변혁 운동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선거투쟁에서 광범한 민중운동을 전개하며 대중과 결합하기보다는 적진분열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지

배집단의 구도를 완성시키는 1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3·24총선은 현실적 여소야대·내용적 여소야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건국초기 우리 국민의 승리와 미국을 비롯한 지배집단의 의도가 부분적으로 맞아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미국과 지배집단의 부분적 의도 관철이라 함은 그들의 대선구도나 민중·민주양당구조가 아니라 보다 안전한 다당제하의 대선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승리는 지난 88년 4·26총선과 마찬가지로 반민주적 전진을 꾀하는 민주세력의 '당신가능한 야당'에 의 부패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3·24총선은 민족·민주 세력의 합법적 정권체인 민주당의 실패와 전국연합의 독자후보·연합공천의 한계를 노정시켰고 이것은 민족민주세력에게 귀중한 반성과 극복의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의 귀중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사상·조직·대중적 통일적 길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지난 대선

92 대선을 전망한다

3)민민운의 대선투쟁

의 상황으로 역류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선투쟁전술의 두효를

실제 대선에 대한 입장은 크게 민족중심의 민주연합과 민주중주의 민주대연합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민족중심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과 연합하여 선거과정에서 민주와 독재를 대립을 명확히 하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과정에서 형식적 표표를 민주대연합에 두고 그 내용을 민족중심의 고요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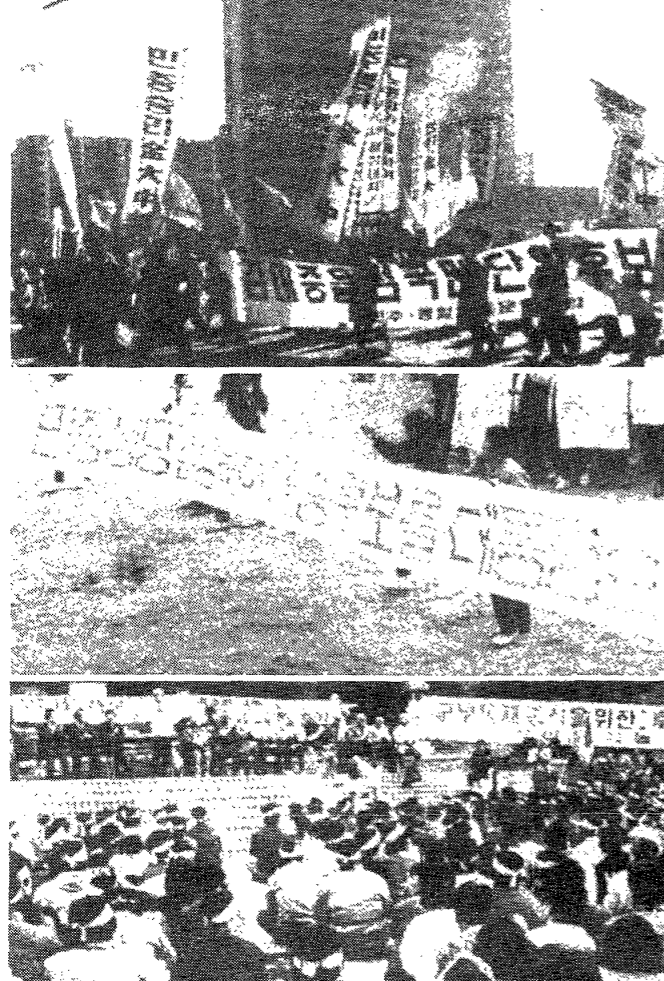
또 하나의 효로써 민주대연합에 동의하지만 민족중심 중심보다는 민주중주의 대선에 입해야 된다는 후자의 견해이다. 이것은 나아가 민주대연합과 독자적 정치세력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민족중심의 민주대연합의 원칙하에 '당신가능한 야당'으로 개 투표한다는 전술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방침을 실천하였고 이제 대선에서 다시 실천해야 할 때이다.

둘째, 우리는 사상·조직·대중운동의 통일을 달성해야 하며 특히 조직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등의 대중조직을 강화하여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정치적 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선까지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중속에 조직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꾸려 대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활동 필요

87년 후보전술, 민중운동 분열-대선 패배 자초



화를 분리하여 민주대연합은 결국 보수야당을 돕는 들러리의 길이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을 만들어서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한다.

이 두가지 견해를 평가해 볼때 굳이 이들 두견해의 차이를 두루민중중주의가 일부 운동세력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 민족중심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민중운동의 객관적 역량을 상당정도로 합하고 있다고 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의 정치정세는 민중운동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합법정당, 독자후보가 아니라는 객관적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의 아직도 의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분단반공 이데올로기 지형의 공고화로 인한 선택폭의 협소화, 전근대적 행정선지정 등이 존재하고 있고 단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한겨레신문의 독자후보에 못 미치는 민중당의 득표는 주관적 평가에 대한 경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구면에서 민주중주의 민주대연합을 이야기할때 결과적으로는 민중운동의 고립만이 심화될 뿐이고 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과정에서 민족민주운동 전열은 조직활동의 중심을 민족중심의 고요에 두고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함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중들과 함께하는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이기전에 우리는 대중운동의 조직적 중심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민족중심 내부의 사상적 통일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의가능한 것부터 최대공약수를 하나 둘씩 확보해가며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현시기 조직·사상적 통일의 실천적절점이다.

우리는, 지배집단에게 있어 민족민주세력의 분열만이 그들의 잠미 빛 미래를 보장해 주었고 민중에게 있어 참담한 삶의 질곡을 가져왔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선거투쟁에 있어서도 창조적인 방법이 건지되어야 한다. 확장되는 선거구면에서 국가보안법, 선거법, 노동조합법 등 민중민주투쟁의 장애물과 구속력,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양심주의 사면적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또한 공명선거 실천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투표과정에서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무는 주체적 실천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그러한 길로 나아가면 대선 87년 대선결과를 되풀이할 수 없다.

92대선에서의 패배가 있다면 다시 4년은 민중에 참담한 삶을 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김 용 현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현행 성적평가 문제없나

평가기준 교수마다 '따로' 학사관리원칙 철저히해야

수강신청기간이 다가오면 몇몇 학생들의 분주한 모습을 본다.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누구냐에 따라 학생들의 표정이 엇갈린다. "야 누가 학점 잘 주냐"는 이제 쉬쉬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이다.

지난 6월 재단평가에서 91년 을 A학점이상과목이 11개, 을 B학점이상과목이 80여개에 이르는 재평가 결과는 성적평가에 대한 문제와 그 개선책의 시급함을 말해 준다.

학사내규 제63조는 절대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졸업정원율 시행당시 해당 과목의 학생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상대평가가 적용되지만 87년 입학정원율 시행된 이후 성적은 교육효과와 절대적 측정치로 정의되었고 그것이 현재 성적평가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단평가에서 학사관리문제가 지적되면서 교수들간에는 절대평가·상대평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상대평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현행 절대평가의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통된 성적기준이 없다

학사내규 제64조(성적종합)은 '출석 10% 수시시험 60~80%, 과제물평가 10~30%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년 12월 17일 개정) 그러나 '이 규정은 사문화됐다'는 판단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수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일부교수는 결석 3번이상이면 F, 어떤 교수는 출석을 거의 개의치 않는다.

이같은 교수마다 다른 평가기준은 특히 교양과목에서 수강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빚기도 하고 보통수업때보다 2-3배의 학생이 시험시간에 들어오기도 한다. 즉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너무 엄격한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 교수들의 수업에 듣는 학생들의 고민도 크다. 선배들로부터 "그 교수님은 어떤 이유로든 3번이상 결석하면 학점 안준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배는 부득이한 경우의 결석 3번으로 전수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취업 내신성적-학점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있어 '대학 내신 성적'은 '취업'의 서류전형이 난관으로 봉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 기업에서 각 대학의 성적평가기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본교 컴퓨터공학과 성적기준은 타대학 동일과 성적기준과 비교했을 때 제일 까다롭다는 평이다. 반면 4년 평균평점 4.0이 상이 불의의가 없는 과들도 있다.

재단평가 지적이후 11월 총장명령의 '학사관리' 철저히 행하는 공문은 가급적 상대적 측정치 평가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가 검토의 균형과 적정성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 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보다 철저한 학사관리로 일관하라는 학교측의 입장이다.

앞으로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보다 현행 절대 평가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문제도 지적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학사관리는 학업부진 학생에 대해 기어할 것이다.

<이병민 기자>

불국사, 임란의병 주요 진지

경주 국사학과 김효식 교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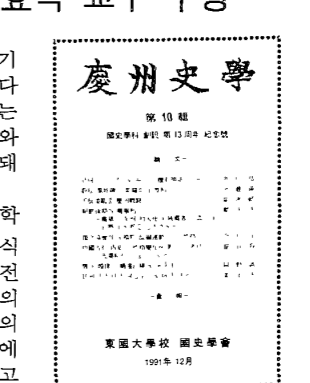
임진왜란 발발(1592년) 4백주기를 맞으며 한-일관계의 재조명 등 다각적인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란당시 경주지역의 전투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본교 경주캠퍼스 국사학과 국사학회 '경주사학 10집'에 실린 김효식(국사학)교수의 '임진왜란중 경주지역의 불국사' 논문은 불국사가 당시 의병들의 주요진지로서 사원과 의병부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 항왜전선에 앞장섰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던 경주지방의 판공 및 의병들의 전투상황을 지역별로 기술함으로써 임란당시 경주지역의 사회상과 군제(軍制)를 밝히고 있는 김교수의 논문은 학계로부터 임란당시 최전선지역이었던 경주지역의 판공 및 의병의 군제사연구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경주사학 10집'에는 김교수의 논문을 비롯 스승대사관개념으로 분석한 단군신화(윤명길·본교장사) △19세기 말 미국전쟁에 대한 연구(강태구·한국대교수) △당대 호환을 일컫는 위법 조에 대하여(오가노 마코토·명지대교수) 등 8편의 연구논문이 실려있다.

<박성경 기자>



제1회 「건설논문상」 현상 공모

21세기의 기업미래상으로서 세계적인 다국적 건설그룹을 지향하는 삼성중합건설이 미래 건설업분야의 주역이 될 대학(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논문상」을 제정하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공 / 모 / 요 / 강	공 / 모 / 요 / 강
<p>1. 참가대상 ● 각 대학(원) 재학생과 관심있는 자</p> <p>2. 응모기간 ● 1992. 9. 1 ~ 9. 15</p> <p>3. 응모주제(8개중 택일) ● 건설시장개발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국토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이거주의(NIMBY) 증가의 문제점 분석과 해소방안 ● 현행 건설입찰제도의 현안문제와 개선책 ● 2000년 주택정책의 과외효과 분석과 향후정책 방향 ● 교통부동산시설 미흡에 따른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현안문제와 향후정책 ● 건설재해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 건설시공 방법의 기계화·자동화에 대한 현안문제와 혁신방안</p> <p>4. 응모요령 ●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 (단, 학교명이 표시된 원고지는 사용금할. 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제출시 30~40매 내외.)</p> <p>5. 시상내역 ● 대 상 1명: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 3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 6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 기 타: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p>	<p>6. 작품심사 ● 1차: 삼성중합건설 자체심사 ● 2차: 삼성중합건설이 위촉하는 각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p> <p>7. 입상자 발표 ● 1992. 10. 18(삼성중합건설 청림기념일)</p> <p>8. 시상 ● 1992. 10. 18(삼성중합건설 청림기념일)</p> <p>9. 제출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3층 삼성중합건설 기획팀 (중앙우체국 사서함 8526, 우편접수 가능)</p> <p>10. 기 타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중합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중합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할 것. (TEL: 727-0301~4)</p>

삼성중합건설

SAM YANG GROUP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 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성명	남/여	대학교(원)	과	년제학
주소	(우: -)			

※ 본 설문조사는 당사의 채용,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있는 참여와 답변을 바랍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 () () () ()
① 경제학안정 ② 사회적책임 ③ 세이브 ④ 사회에 봉사 ⑤ 대인교류
2. 귀하의 졸업후 예정직무는? () () () () () () () () () ()
① 일반기업체 ② 국영기업체 ③ 외국기업체 ④ 금융계 ⑤ 공무원 ⑥ 연구기관 ⑦ 언론계 ⑧ 교육계 ⑨ 자영업 ⑩ 전학 ⑪ 결혼
3. 회사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 () () () () () () () () ()
① 성장성 ② 안정성 ③ 급여수준 ④ 회사규모 ⑤ 최고경영자의 면모 ⑥ 선배, 멘토 ⑦ 승진속도 ⑧ 사품 ⑨ 업종 ⑩ 회사의 사회공헌도
4. 기업체를 알게되는 경로중 두가지를 선택하면? () () () () () () () () () ()
① 기업광고 ② 기사 ③ 제품 ④ 선배, 친지 ⑤ 기업설명회 ⑥ 전문잡지 ⑦ TV, 라디오광고 ⑧ 산업시찰 ⑨ 산업학도 ⑩ 사육위치
5. 삼양사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 () () () () () () () ()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심하다 ⑤ 매우 나쁘다
6. 삼양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그 이유는? () () () () () () () () () ()
① 회사의 건설성 ② 대외적 공신력 ③ 노사화합 ④ 지속적인 성장 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⑥ 인화적 회사문화 ⑦ 주주사익의 정관
7. 삼양사의 제품중 두가지를 아는데로 표시시오 () () () () () () () () () ()
① () ② ()

※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자료 250명을 추출하여 고급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학업에 발전있기를 바랍니다.

(자 르 는 선)

■ 응답하신 설문지는 오려서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우편번호 110-725 서울 종로구 연신동 263번지 삼양빌딩(주) 삼양사 인사부 설문조사 담당자 앞
■ 접수기한: 1992년 6월 20일

환경, 새로운 통상무기로 등장

제2의 UR-리오선언

유 미 호

(한국교육환경연구소 간사)

21세기를 향한 세계적인 지구환경 보전대책을 논의하게 될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앞두고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선진국과 이 의도를 막아보려는 개도국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현재 선진국들은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개편을 환경우선에서 찾으려는 기류가 팽배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시대통령을 비롯 세계의 70여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도를 안고 있는 후진국들은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후진국의 가난과 예속구조를 영구화하려는 데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후진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절대 빈곤의 상황에 있는 후진국에 동등하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세계 오염물질의 80%를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이 20%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후진국에 환경과피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단산가스 방출량만 보더라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3배, 미개발국의 6배에 이르고 있음을 볼때 그 복구와 보전책은 일차적으로 선진국이 짊어져야 한다.

계속적인 '개발'을 위한 면적부(?)

에담초 리오회의의 관심은 오직 개발(경제)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전 일본에서 열린 '지구환경에 관한 아시아 NGO포럼'은 이를 지적, "선진국 정부나 특정 대기업이 주로 지구환경과피를 저질러놓고 이번 리오회의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면적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회의가 정부간 또는 남북한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치우쳐 환경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회피하고 있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공비확장, 전쟁, 다국적 기업, 핵무기, 핵발전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에담초 관심이 없었다. 또한 구체적인 핵발전소 산업에서 우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방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핵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려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대결'로 치달은 환경문제

지난 4월 말에 타이에서 개도국

환경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거듭 촉구하는 '발라루푸르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55개 개도국 대표들은 개도국의 치명적 이해가 걸린 문제인 재원마련, 기술이전, 산림보전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이 선언은 개도국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새롭고 충분하며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 새로운 환경기금 설립이 주요 골자다. 기존의 개발원조에 더해 개발에 충분한 돈을 지금부터 지구환경과피를 도맡아 한 데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내놓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구가 자금운용을 맡아서 하는 안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데

정부간 협상그룹은 지난 9일 폐막된 뉴욕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조림(造林),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협약 초안을 최종화했었다.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일정은 합의되지 못했다. 유엔공동체(BC)와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고 주장한데 반해 미국이 자국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과제는 아니지만 환경협약과 국제 경제질서재편의 협상과제를 실감케 하는 것은 지난 90년 런던회의에서 채택, 89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인 '몬트리올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비기후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제협약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7일부터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40배까지 비싸다. 따라서 냉각수, 에어컨, 자동차 같은 수출품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하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프레스 가스 규제에 대응해 새로운 대체물질을 개발해 왔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정보 부족으로 규제대상인 프레스 가스시설을 오히려 늘려 부분적으로 조업하는 공장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약이 맺어질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20년 안에 50%로 줄여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를 많이 쓰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집집마다 난방을 줄이고 화석연료는 모두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시정(지난해 8천억원에서 오는 2001년에는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이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영국 프랑 스 스웨덴 핀란드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이 움직임이 활발하다.

호주 등의 장편이나 대사금 인사가 환경자를 잇달아 방문해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다진하고 돌아간 것은 단적인 예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다가오는 '그린 워드'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1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정하고 '환경과 학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 약속이 절실한 노력을 얼마만큼 수반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기형적 경제구조...기술개발 '속수무책' 선진국, 환경협약 자국이익 추구수단으로

부분의 청정기술이 민간기업 소유이며 또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어 첩사리 이를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남북간의 기술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볼때 이번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잠자는 나라이'와 '못사는 나라'간의 갈등이 커 '남북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환경, 새로운 무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같은 '남북대결' 양상은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환경규제 움직임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개도국 상층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 결과적으로 각종 환경협약을 자국 기업들의 독점이유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오선언'과 21세기 향환 구체적 행동지침인 '실천과제(Agenda 21)'을 채택,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동안 4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일단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구체적인 협약내용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최우선 각국의 이해가 다를 것이 많을 것이 때문이다.

특히 '의제 21' 실천활동의 하나로 회의기간 중 서명절차를 마칠 기후변화협약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지구 온난화방지 협약)은 지난 88년 11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의 보고서를 근거로 협상그룹이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밖에도 국제환경협약 중 무역, 제재를 골자로 한 협약이형 경제력을 갖춘 협약은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과 바젤협약 위상된 협약 등 10여개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여 1인당 GNP 6천달러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지구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원목 수입국이자 원양어업국이 80년대의 탄산가스 방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GNP대비 전력소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환경평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20% 수준이다. 또 우리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는 세계 어느 공업국보다 높아 산업기술이 환경부합적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이나 96년에 OECD가입을 앞두고 있다. 만약 OECD에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도 개도국을 위한 원조를 해야할 지 모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지구환경규제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신흥공업국인 우리나라는 환경규제의 40배까지 피해국이 될 공간이 크다.

85년 시작된 온난화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문제도 이제서야 그 준비에 들어가 1년에 약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GNP환상에 빠진 역대 정권에 의하여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더욱 많을 것이다.

올해부터 규제될 경우 예상 수요일 366천톤 가운데 1만 6천톤은 대체물질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이 대체물질은 값이 CFC보다 4배에서

인터뷰

전대협 출범식 준비위원장 김 정 기 군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대선이라는 선거문, 그리고 서울이 정치·사회와 중심지라는 점에서 이번 출범식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부터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2일 한양대 총학생회에서 출범식 준비위원장이며 전대협대변인인 한양대총학생회장 김경기(독문4)군을 만나 보았다.

▲현재 한양대의 준비정도는... -19일 이후 본격적인 준비위원 위기입니다. 각 파벌 자원봉사단 모집이 진행중이고 22일 현재 1천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또 전대협의 역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과·단 대차원의 모금운동, 염서·분봉기가 운동이 진행중입니다. ▲출범식 준비를 하며 어려운 점이... -출범식 준비경험이 없어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체기획이 잡히고 역할분담이 되면서 지금은 한가지씩 해결해 가고 있고 특히 파차원에서 학년 분임토의 등을 통해 '우리과 우리학년'에 대한 애정을 할 것인가가 논의되면서 자발적인 준비사업이 활발합니다. 집행부에서의 준비보다 과·학년차원의 준비, 즉 밑에서부터의 활발한 준비사업이

"10만 손님맞을 잔치분위기"

점이라는. -출범식 준비경험이 없어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체기획이 잡히고 역할분담이 되면서 지금은 한가지씩 해결해 가고 있고 특히 파차원에서 학년 분임토의 등을 통해 '우리과 우리학년'에 대한 애정을 할 것인가가 논의되면서 자발적인 준비사업이 활발합니다. 집행부에서의 준비보다 과·학년차원의 준비, 즉 밑에서부터의 활발한 준비사업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1일 있게 될 서울시민행당당의 의의는... -지자체실시, 약법절과는 현재 당면한 무쟁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대협의 사업을 선전함으로써 민주정부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집회양식과 달리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 무쟁의 대중화를 꾀한다는 데 기본 입장입니다. ▲올해 전총선건설 사업은... -전총선 건설은 서울·지역대협·각대학의 조직강화를 의미합니다. 지역대협을 강화하고 자

주최 사업을 보장해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단과대학학생회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범식 기간에는 전대협집행부와 학생간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범식기간 인공기 게양여부...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지만 출범식기간에 인공기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병민 기자)

전대협출범식 준비 상황



한양대 정문을 들어서면 백만학도 맞이 통일한반도 그림이 진사로 바다에 그려져 있다. 지금 한양대 교정은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을 치른다는 잔치분위기가, 각 파벌 자발적인 대학에 염서·편지쓰기에 바쁘고 총학생회실은 전대협 준비위원과 학생대 준비위원이 출범식 준비에 분주하다.

총9천만원의 행사비용, 3천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10만 학도(전대협 예상인원). 제6기 전대협출범식이 벌어지고 있는 준비사업은 자원봉사단 2천명 모집, 1인 5백원 모금운동을 비롯 해 교정구미기, 열개·바다그림, 속박시를 마련한 점까지 다양하다. 더욱이 파차원의 자발적인 준비사업이 활발하게 특색인데, 교육학과

개의 열개그림 그리기 작업에 바쁘다. 학내 곳곳의 계보물과 자원봉사단모집, 그리고 파차원별 분임토의를 개최한다거나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의 중간점검·결과를 보고하는 대차보가 출범식 전야를 앞둔다. 그러나 한양대 교정의 전대협 열개의 그림은 전대협의 준비상황을 지금껏 요약한다. 당초 출범식 준비과정에서의 목표와 각 파벌대협, 대학 나름의 준비사업을 자라게 한 진행시켜 전대협, 지역대협의 조직강화는 물론 각대학에서는 단과대·과학생회의 조직강화에 부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현재 보고하는 미술학과 학생회의 T셔츠 제작 및 판매, 그리고 불교대·문과대·야간강좌의 홍보 대차보에는 우리학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분임토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단위 자발적 준비사업 활발

의 경우 1학년 학생회(지구생활학생회)에서는 분임토의를 거쳐 '사수대를 위한 담배모기운동'을 벌여 귀중한 모범사례를 창출하기도 했다. 또 건축과·건축공학과·응용미술과 교육과 중심인 '애국한양문화예술단'은 진사로 바다그림을 비롯해 2

의 어머니 한분이 올라왔다. "애국시인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이 학생들이 누구의 자식을 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왜 이들이 현실권에 반대하여 테보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역시 내지식만은 운동권이 아니라 민고 아래정사하며 대학이나 말 만들겠다고 기웠는데... 지금의 노태우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한 이나라 애국학생으로서 운동권이 아닌 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 김종분(54)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시민들을 향해 소리쳤다. 비록 논리적이고 세련된 표현은 아닐지라도 어머니의 이 말씀은 그날 모인 학생, 시민 모두에게 더이상 독재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민중이 없도록 반대의 반목 계투행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각인시켰다. 오직 조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누구도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라며 외면할 수 있는가. (조승우 기자)

동약로

고 김귀정 열사의 1주기 추모노제가 예정되었던 지난 25일, 경찰의 원천봉쇄로 노제강행이 불가능해지자 서충원소속 2천여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성북구 돈암동 글다리를 점거한채 가두집회를 기술적으로 벌이고 있었다. 이때 시위대로 보이는 예닐곱명의 대학생들이 분대하고 떨어진 노번으로 나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현정세와 정권타도에 대한 내용으로 소단위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년남자 한명이 불쑥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학생이 무슨 테모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나하고 공돌이들은 공장에서 일이나 할것이지. 괜히 길을 막고서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니 너희가 오히려 사회를 안을 조장하는 주범 아니냐"며 샅대질까지 해댔다. 이에 학생 하나가 반박하려하자 그 중년남자는 씨도 안막히는 한 어머니의 항변

한 어머니의 항변

소리 달라는 듯 등을 돌려 행인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후 시위중증의 중양에서 대형스피커가 설치된 가두선전용 소용트러 지붕위로 소박한 물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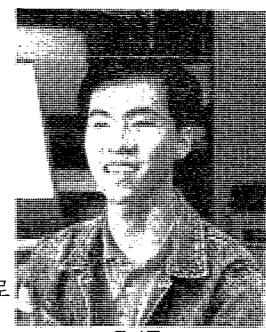
"우리의 이동통신 기술은 지금 21세기와 교신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바라보며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기술 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소비자의 수호를 파악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꿈이었던 노력이 다 더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대를 준비하지 않고는 막상 그때가 닥쳐왔을 때 기술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열 중요한 기술 분야의 하나로 이동통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뉘어 지는데 현재 쓰이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늘어난 통화량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으로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렇고 그 목표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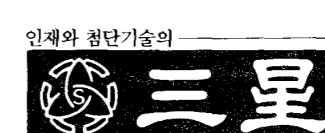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하면 어려움이 더러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기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이 기술의 비전은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술로 응용할 줄 아는 인체가 꼭 필요합니다. 상상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첨단기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인재를 소중히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이라는 단상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원칙이 우리의 연구 풍토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느냐가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관건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해본다. "이동통신 기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자기술 전체가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문형 반도체인 에이직(ASIC)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문형 반도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에이직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틀에

어메이지 않는 자유롭고도 강한 응용력을 가진 인체가 필요합니다. 큰 물고기는 넓은 바다로 나가려 하듯 큰 목표를 향해 나 자신을 던져 보고 싶은 공학도로서의 꿈이 꿈틀 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꿈은 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듯했다.

삼성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문상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문상준 군이 삼성종합기술원의 홍영진 실장을 찾아가 우리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리

본사 주최 제30회 전국 고등!

시부 장원

강 종 현 (서형고3)

내 소중한 이가 말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림이 그리운 것
눈물을 흘리는 등나무처럼 꽃이 되고

내 소중한 이를 생각하며
밤에도
이른 새벽창에도
단절된 내 시간을 접는다
홀로임으로 통풍 창기에 인자본다
아직도 익숙한 낯빛으로

향기는
그리움으로 외로운 수 밖에 없는
시간속으로 이끈다
남편이라 현실을 망만하고
그리움에 거리를 헤치고
민중이 이뤄져 백을 돌리고
시간이 덧없다 슬에 의존했던 그 날

그 날
내 소중한 이는 열의 끝까지 잡고
내내 열의 끝이 다가온다
열의 끝은 외로운 날이래...
아직도 깨지 못한 나의 낯빛
등나무 꽃처럼 빛깔이
꽃등을 흐른다

꼭
떨러오는 힘찬 노래의 소리
다른 세상의 열 끝 같은 손수
눈물 비비며 비속을 헤친다

오늘밤
내 소중한 이가 떠도는 영상속에
모든 위로와 포근함속에
꿈을 띄운다
열의 끝이 외로운
열의 벽을 넘어 음악한 선택임으로

시부 우수작

김 양 순 (진상고3)

"우리 소리를 듣는 진정한
고해신부는 없습니까?"

작년 추곡 수확에서도
맞아지기 눈에서 얼어지는 건
아버지 손에 쥐여진 농약 고지서와
뻘에 사무친 한숨 뿐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 죄라며 농약병을
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머릿간
잡리고 말들만 남아 있던 많은
바들의 아우성속 나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더 큰 절규가
은 불판에 쌓여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잊어 주진 못했습니

달동네 사는 언니의 방에서는
짜구려 향수도 연방들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
너털거리는 문풍지와
공고리에 끼우는 듯한 송가락
악몽같은 세월에 기어올린
가족들의 얼굴이 흑백 액자 속에
무덤에 걸려 있었습니
매달 보내오는 언니의 송글 봉투에는
미심쩍게 웃는 봉투봉투는 다리와
공정의 수업을 볼뻔한 밤낮을
별과 함께 실려왔지만
빛이 있는 공간보다 하늘의 어두움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치유된 되는
쓰레기와 달리 밥으로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황후과도 같았고
형용사적 어휘를 바라는 권으로 묶고
마른 철을 삼키며 일어서는 모습은
우리들의 또다른
흐느껴 소리였습니다

소설부佳作

"원 한했던 귀신들은 모두 모두 물
러가고, 이제는 저승으로 휘
어휘이 가버려..."
"정정정 정지정, 정지정 정지
정..." 아까부터 바깥이 소란한 듯
싶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않았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다.
아까부터 꿈결인양 정소리며 북소
리며 장구소리같은 것이 이불을 머
리끝까지 덮어 쓴 나의 귀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신경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는 더
욱 커져 온 집안이 떠나갈 듯 했
다.

아마도 그곳이 벌어지고 있는 모
양이었다. 거미이 할머니께서...
나는 문을 살짝 열지 않고 나무들
사이의 빛바랜 창호지에 손가락으
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계속
쫄래눈을 비비며 그 구멍에 갖
다 대었다. 역시, 구멍은 한창 절
정에 이른 듯 했다. 흰 무명 저고
리 나마 깨끗하게 빨아 입고 연실
손바닥을 비벼 합장하시는 할머니
께서 연방 허리를 접었다. 피시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울긋불긋
한 무덤의 옷과 돼지머리며, 시루
떡이며 한 상 잘 차린 음식들도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 무덤이 반쯤쯤 주
문같은 사실을 늘어놓는 부패를
접었다 폄다 했다. 곧게 펴인 할머니
의 주름살 박힌 얼굴이 웅장한 기
승을 풍물하게 했다. 눈을 창호지
로부터 떼었다. 여전히 머리가 깨
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두려웠다.
그 무덤가가 자신을 조급하게 쫓아
오는 것만 같은 석연함을 떨칠 수
가 없었다. 자꾸만 똑같은 꿈을 꾸
었다. 아버지, 사막을 헤매는 그
초라하고도 아찔하고도 안타까운 아

버지의 뒷모습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다리를 걸걸 끌며 그 어디
론가 계속 가고만 있었다. 아무리
블러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아버
지께선 얼굴 한번 들리지 않으셨
다. 작열하는 태양이 하늘에서 호
물거리고 모랫바람이 여기저기에
인덕을 만들며 살갗에 따갑게 와
닿았다. 하늘은 보랏빛이었다가 점
점 검어지고 하늘 저쪽 끝은 사
막과 맞닿아 있었다. 나는 항상 계
자리만을 맴돌며 헤매이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그러다 가위에 눌려 놀상 잠
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때마다
가슴이 바작바작 타들어가는 것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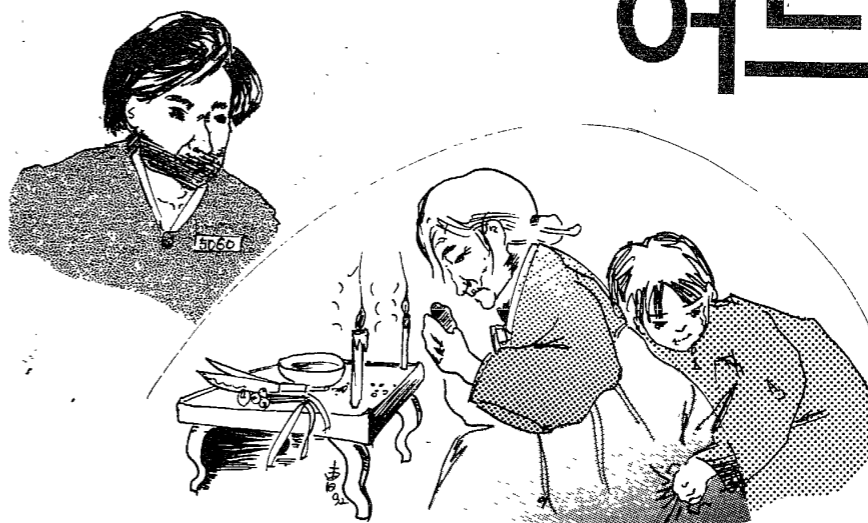
마당에 도랑을 내고 내가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전에 한번
도 본적이 없는 한복이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신채 마
당으로 나오고 계셨다. 아버진 "애
비 이제 간다. 세상으로 간다. 저
기 저기..." 나는 멍뚱히 쳐다만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 희미한 미
소를 잃고 떠우신채 천천히 집을
나가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런
애절이 탐오셨던지 나는 멍하니 바
라보만 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읍내로 학교갔던 형
이 돌아오고 발에 가셨던 할머니,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후에 집안이
발라 뒤집혔다. 아버지의 가슴때문

었고 우리집의 희망이었다. 형은
말수가 적었는데 그래, 형은 한 배
이지의 침묵이었다. 항상 무언가를
말할 것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런 형이, 공부밖에 모르는 졸업했
던 형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 소
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 된 것이
다. 4월 어느날인가 경찰이 집에
다녀와도 방학도 휴일도 아닌 어
느 날 밤중에 형이 내방으로 도둑
같이 들어와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가슴이 멎는 줄 알았다. 이따
에 피가 엉겨붙어 있었는데 웃으며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좀처럼 흥
분하지 않는 형이었는데 형의 목소

진했다.
살 교정
을 타는
기처럼
히 있다
일일것이
가고 싶
서 살아
은 그들
것은 너
아닐 수
것이래도
고급감,
했다.
적정에
같아 따
그들이
오늘도
리를 해
도 생각
다. 그
잔다. 나
했다. 형
키 놓고
을 안
며 걸걸
다 진하
데 그런
헤란 길
어머
가했다.
모두들
소복을
키했다.
형제를
나진 것
모를일
않아 귀
노릇을
내 기억

어느날



잡았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답답함, 편지 모를 답답함. 그 어
둠과도 알찬 답답함이 나를 미지
게 할 것만 같았다. -아악!- 벼
랑 아래로, 팔도 없는 벼랑 아래로
차라리 영원히 떨어져 버렸으면...

에, 나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
하고 뒀지 못했다. 아버지는 폐
암이었는데 병원에서 일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름도 채 못살거라는
진단을 받으신 뒤였던 것이다. 훗
날 아버지에 대해 좀더 알게 된 것
은 아버지께서 얻은 지병과 여러
부적 병들이 감옥에서 얻은 것이
라는 사실이었다.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민주화에 대한 아버지의 지
언이 시회 여러 모수에 수없이 부딪
히고 그래서 깨어지고 조각나고 산
산히 부서지고, 선두주자였던 민주
화 운동의 결과로 부유되고, 몸살
병을 입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갑
갑함으로 이제 무기력해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시골로 그 구석진 골
방에서 혼자만의 고독과 외로움에
이를 갈고 지를 밀며 조금씩 조금
씩 자신을 박제화하고 계셨는지도
모를일이다. 아무도 아버지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었다. 아버
지의 가슴이후로, 어려운 살림에
집이 되질 것을 아시고 휘적휘적
그 모진 세상에 산송장이나 다름
없었다. 의사선생님이 다녀 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끝엔 편지 모를
석연함은 감정이 내 가슴 속에서
파도를 친다. 그리고 시린 피아란
하늘을 볼때면 허탈함이 눈물이
난다. 아주 작은 그 기억의 플레
시 계시지만...

를 물어린 눈에 어두운 풀!
나도 모르게 손바닥을 울
어보았다. '이제 앞으로
두고 웃음 나눌 수 있는

학교 익
린 어떤
죽음, c
아저는
뿐이다
기억 시
막연한
출다.
어머
그래도
만들었
를 찾고
되지 않
계에 다
찾고 싶
시달려
곤 하듯
미국에
갔다.
부에는
세웠다
는 홀쭉
것이.
불타던
는 속내
담들은

수필부 장원

나

인간은 모든것을 의적으로 드러
나는 현실적이고 결과적인 요소들
로 평가받게 된다. 요즘과 같이 인
간성이 말살되고 정서적으로 결핍
된 사회에서는 자신의 환경이 얼마
나 중요시되고 있는지 모른다. 특
히 12년간 축적해 온 지식의 수준
을 대입시험 단 몇시간에 평가받아
야 하는 우리학생들은 가슴으로 살
기보다는 자신의 철저한 보호막안
에서 머리로 살고 의적으로 살아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가슴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을 찾아가고자하는 친구들
도 가끔은 있다. 이진 오만이고 작
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살
아가고자하는 그 몇명에 나도 끼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에 나

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그
리고 나의 뒷배경들중 그 무엇보다
도 나의 용광로처럼 뜨거운 가슴을
사랑한다. 나의 가슴은 항상 진실
만을 말한다. 나의 눈과 코와 입은
때론 거짓을 보고 더러운 것을 뱉
새말으며 허위를 말할때도 있지만
나의 가슴만은 항상 진실하기위해
나 자신을 피땀아보게 하고 채찍질
함은 물론 더러운 세상에 섞여들어
가고 있을때 그곳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여유가 있

수 있는 가슴의 솔직함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나의 가슴은 인간들의
추악함을 보았음에 교활함을 보았
을때 어찌 더 깨끗하고 정의롭게
바라다려.

내 모습찾기에 열중해온때에 어떤
웃을 입든 "자진 김영인스타일"이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기에 소
위 말하는 메이커회사에서 대량으
로 만들어내서 거의 비슷한 옷차
림을 해서 개성이 없어져버린 친구
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는 나로
를 살 수 있게 된것이다. 얼마전 신
문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개성
이 없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내지못
한탓에 자신의 주관적인 인생관이
나 생략만져져 버렸다는 기사
를 봤다. 이런 시절에서 좀 존스
럽기는 하지만 모습을 보이지않는
범위내에서 확실하게 내 모습찾기
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
다. 세상이 자꾸만 변해서 모든 사
람들이 좋은 나쁜진 특강이 많아간
다해도 -서로 알아가는 모습에 때
로는 보기좋은 기쁨을 주더라도 언
제나 나는 나일뿐이다.

나는 유행에 둔감한 편이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아줌마같은 말을 듣기도 한다.

올때면 물질적인 허락임 뿐만 아니
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인간애와 사랑에 흠뻑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하고 부드러운 가
슴을 열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가슴이 그렇게 변함없이 따스
하고 부드럽기만 한것은 아니다.
사람의 입은 교활해 편에 따라
다른 말들을 토해낼 수 있지만 그
래서 항상 불행과 같이 느껴지지만
잘못이 있을때 복풍의 차가움도 즐
게 될때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로 언니가 아무리 최첨단유행을
입었다해도 내가 입을때쯤엔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
생활이 몸에 익은 나는 옷을 고르
는 인복이 없어져버렸고 황소같은
고집맞춘 유행에 따르기도하는 나
만의 독특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즐
긴다. 유행에 관계없이 나의 모습
을 찾아가다보면 이따금씩 촌스러
움의 극치를 달리는 듯한 옷을 입
게 될때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 개성적인 모습을 지닌 나를 보
면 무척기쁘다. 그래서 날 사랑하
는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시간 한
번.

김영림(김천여고2)

1992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
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
과, 일어일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
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
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
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
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
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
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
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
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
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
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
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
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
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
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
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1) 시험과목: (가) 영어 (나) 전공 (다) 구술고사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 시
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과목에서 출
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과정

1) 시험과목: 영어 전공(공통, 세부전공)
제2외국어 구술고사
2) 시험내용
가)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제 2외국어 부과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
문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 제 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일, 일어,
불어, 한문, 중국어 중 택일(단, 불어는 인도철학
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철(동양철학)학과에 한
함)

3)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4년제 대학 교요수
급(전공대 부교수, 공인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서 5년이상 근무한자)에 상당한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음.

3.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1992.5.27(수) ~ 6.2(화)
나. 원서접수기간: 1992.6.1(월) ~ 6.2(화)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시 및 장소
1992.6.12(금) 오전10시 동국관

전화 260-3093-3094

불교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불 교 학 과: 불교학, 선학
② 불 교 사 학 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 사회학과: 사회복지, 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6. 1(월) ~ 6. 12(금) 본대학원
① 석사 및 연구과정
1992. 6. 19(금) 오후1시 본 대학원
② 관리자과정
1992. 6. 20(토) 오후1시 본 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 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4. 전형방법

① 석사 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260-3097-3098

행정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 행정 학 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
발, 관광행정, 언론홍보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
략, 북한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6.2(월) ~ 11(목) 본대학원
① 석사 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 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 행정관리과정: 서류전형, 면접

전화 260-3101-31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수강신청절차 문제 많다

대안없는 정정기간, 비효율적 학사행정 초래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요즘 서울지역 몇몇 사립대학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이에 대한 가시화된 논의는 없으나 3차에 걸쳐 진행되는 현 수강신청제도는 학사행정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본교는 개강전 학기말 1차 수강신청접수를 실시하고 개강 1주일후 확인 및 정정기간을 거쳐 개강 10일 이후에 최종적인 수강신청기간 폐지방향을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이때 수강여과 교과목은 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수강정정기간 폐지 반대 의견이 97%로

뿐만 아니라 개강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강의실 조정, 강사배치 등이 수강신청 이후 혼란이 생겨 기준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인원초과로 인한 분반, 강사계약과기동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학교 교무처에서 폐지론을 대두시키고 있으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본교와 같은 제도를 취했던 숙명여대의 경우 학교측이 이같은 전방적 학사행정까지 미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 92학년도 2학기부터 일방적으로 수강정정기간 폐지방향을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수강여과 교과목은 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수강정정기간 폐지 반대 의견이 97%로

나왔고 주된 이유로 신청과목의 내용이 예상과 다른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같은 학사행정의 효율성을 인정해 폐지한다 하더라도 선결 대안 마련 없는 폐지는 있을 수 없는 게 중론이다.

중앙대의 경우 이미 정정기간 자체를 두지 않고 '폐강, 분반'의 경우와 성적명점에 따른 수강신청학적 제한 이외에는 학기초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선수강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교무처에서는 과목별 교수강사를 배정하고 수강신청이전에 시간표를 작성하여 임의변경을 막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타대의 예에서처럼 아무런 대책없는 폐지론이 되어서는 안되며 형식적으로 폐지한다 하더라도 정정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한변의 수강신청으로 학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결조건들은 학교에서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강정정기간 폐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학생들 수강신청전과 후에 혼란이 없도록 수강정정기간의 사유가 되는 근거를 개선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얘기하시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사정변의 계획서 제시, 좀더 분명한 커리큘럼의 명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수강신청전에 교수에 대한 자료, 사전 공개강의, 안내책자 발간도 검토되어야 한다.

효율적 학사행정을 위한 수강정정기간 폐지는 실제 1차 수강신청자가 60%에도 못미치

는 학생들의 의식구조 개선과 사전 학교행정, 교과위 사업들이 선행·연구된 뒤야 가능할 것이다.

자판기 손실금 반환 미반환금 설문조사도

학생복지위원회(회장=권현선·임학4)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도서관에서 자판기 손실금을 반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부터 5월사이의 학복위 직영자판기의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손실금을 반환기 위한 것이다.

학복위측은 이번 사업에 의해 반환받게 될 인원은 3백99명, 금액은 총 9만8천8백10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홍보의 미흡, 반환금청구서의 관리부실, 학생들의 주체적식별여부 인하여 50%도 못미치는 저조한 반환율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복위는 도서관앞에서 손실금을 반환받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손실금 반환서식과 방법, 학생들의 주체적,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예년과 같이 미반환금에 대한 용도에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방침이다.

국비해외과건 연구지원 경쟁선발 형식 추가

92년도 대학교수 국비해외과건 연구지원 계획이 새롭게 설정됐다.

학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전에는 각 대학별로 배정된 소정의 교수수를 총·학장이 교육부가 추천하면 파견연구가 가능한 일반 연구과제신청행위였으나 올해부터 각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교수중에서 교육부가 경쟁선발하는 형식의 공동연구과제신청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국비해외과건 교수의 인원수 설정방법은 각 대학 교수 인원에 비례하며, 일반연구의 경우 서울 3백명당 1명, 지방 2백40명당 1명이고, 공동연구는 1백명당 1명꼴로 인원배정을 하고 있다.

본교의 92년 국비해외과건 연구교수는 경주캠퍼스 이시영(경제학)교수이다.

이교수의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측정오차와 회귀계수의 점정통계량' '회귀계수 벡터의 선형변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한편 공동연구과제교수는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인터뷰



김봉준 군

소위 '반미국권선선' 조직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5일 새벽 전주구치소에서 풀려난 김봉준(아간 경영86)군을 만나 이 조직사건의 의미를 재조

이 묶인 채 '동양구이'고문을 당하면서 겪은 자살서양이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 왜 '반미국권선선' 조직사건이 발생했는가.

— 이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학생 모두가 합법적인 학생회 공간에서 활동했던 대중간부들이었습니다. 즉 이모임의 성격은 대중활동가들의 반합법적인 공개조직으로 학생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한 학원자주화투쟁의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적 모임이었습니다. 6공들이 한학교에서 이와같은 조직사건이 없었음을 비추어 볼때 대중활동 자체를 왜곡시켜 학생대중과의 관계를 괴리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떻게 전개됐으면 하는가.

— 이전처럼 관성적인 투쟁 일본도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내용성을 담보해 일생생활속에서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좀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계획은.

—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강제징집되는 것이 6공들이 합법화되다시피한 현실적 상황에서 이런 기반적 병역법체 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가능한 일이고요, 5~6개월 싸움이 예상되지만 전국연합 인원이나 민가협등 조직구조속에서 들어가 책임있는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 본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학생운동에 대한 객관적

조직사건은 학생대중과의 괴리의도 기만적 강제 징집 철폐투쟁 벌일터

명해보고 이후 생활을 간략히 들어본다.

— 구치소생활을 하면서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 구치소내에서는 바깥생활과는 달리 사소한 정치적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정치적 실수는 곧바로 교도관을 통한 징탈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지난 90년 8월 27일 사소한 실수를 문제삼아 온몸

— 재판과정에서의 투쟁은.

— 우리들의 모임을 유신시대 비법·지하조직으로 조작하면서 왜곡시켰을 최대한 규명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의 역사성, 정당성을 알리려고 학생운동은 반드시 변화·발전한다는 필연성을 밝히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이

인 시각을 견지해 정파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속에서 대중활동을 전개한다면 평가 지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면서 학우대중들과 결합해 나가려는 사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인환 기자)

불상중수 완공일자 지연 우천으로 6월초 예정

불상중수공사가 늦은 날씨와 추가된 기본 구조를 보수공사로 5월말까지 미뤄진 완공일자로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 착공해 당초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완공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예기치 못했던 내부철근구조물의 보수와 기둥의 균형을 잡는 일이 겹쳐 5월말로 연기됐으나 최근 계속된 우천관제로 공사중단이 이어져 이 기한도 지키기 힘든 형편이다.

한편 공사업체인 경진석재주

는 6월초로 완공예정일을 내다 보고 있다.

시림문화상 공모 8월 20일까지

경주캠퍼스 '始林' 교직원집 위원회는 '제6회 시림 문화상 시상공모'를 오는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

현상공모부문은 전국 대학생 대상 단편소설, 시, 평론(분야 제한 없음)이며 발표는 9월 예정으로 당선작은 '시림' 제12집에 실린다.

경주직원노조 부당인사발령 반발 철회서명작업-피켓시위 벌여

경주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채찬호·법정대 교무계장)는 지난 15일자 박정우(장학계장)씨의 포항병원 부당인사발령에 반발해 지난 22일 정오 노조원 50여명이 참가 부당인사발령 즉각철회를 요구하며 부총장실과 교내일원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노조측이 제시하는 부당인사

발령의 근거는 첫째 초9급9명의 대학과 초9급7명의 의료원이 인사체계가 명백히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계급급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것 둘째 인사시기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박씨 부당인사에 대한 무원칙적인 인사행정이 주장됐다.

또한 노조측은 지난 21일 부당인사철회결의 서명서를 서용캠퍼스 총무처로 발송하고 오늘(27일) 오후 5시까지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작품 마감 일상생활 소재 주류

공과대학(학장=신효선·식물공학) 주최 제10회 전국 중고등 학생 과학 아이디어 작품 현상 공모를 지난 22일 최종 접수 마감시킨 결과 총 60여개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출품된 작품성향에 대해 담당자 백정선(공과대 교학계장)씨는 "최신한 생활과학 아이디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를 이뤘지만 중·고교과 과학의 활성화와 부추여오는 연도에 비해 열의와 창의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심사발표는 오는 6월 1일이 며 작품은 2일부터 8일까지 공과대 특별전시장(E606)에서 전시된다.

대학원 등투 마무리

3% 이하액 장학수혜·환경개선에 쓰기로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석사3)는 지난 19일 등록금투쟁과 관련한 최종요구안(4월초 요구안)을 소속 수경한 합의를 대학원 당국측에 전달, 대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등록금투쟁을 마무리짓고 총장과의 합의서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대학원 학생회측은 이날 합의를 통해 '92년도 등록금 인상율을 19%에서 16%로 인하 스쳐에 3%(2천만원 상당)는 현재 50명인 원생장학생을 15명이 추가된 65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나머지 액은 전산실과 원생연구실 환경개선에비

과학교육 마감 일상생활 소재 주류

공과대학(학장=신효선·식물공학) 주최 제10회 전국 중고등 학생 과학 아이디어 작품 현상 공모를 지난 22일 최종 접수 마감시킨 결과 총 60여개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출품된 작품성향에 대해 담당자 백정선(공과대 교학계장)씨는 "최신한 생활과학 아이디어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를 이뤘지만 중·고교과 과학의 활성화와 부추여오는 연도에 비해 열의와 창의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심사발표는 오는 6월 1일이 며 작품은 2일부터 8일까지 공과대 특별전시장(E606)에서 전시된다.

학과소식

불교학과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학년 수학여행을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4학년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지리산으로 졸업여행을 떠난다.

한편 이번 대동계 기금주조 점영영의 수익금(4십만원)은 파내분별청소기(9만원) 구입 및 학반의 활성화와 부추여오는 연도에 비해 열의와 창의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심사발표는 오는 6월 1일이 며 작품은 2일부터 8일까지 공과대 특별전시장(E606)에서 전시된다.

사학과

오는 28일 오후 5시 명진관(A205)에서 4·5월 결산총회를 위한 사전 2학년 4·5월 결산회의를 갖는다.

토목공학과

학생회장보궐선거를 오늘(27일) 오후 5시 원동관(E606)에서 갖고 학생회장을 선출한다.

건축공학과

제16회 건축전을 오늘(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원동관(5, 6층)에서 개최한다.

산업공학과

지난 25일 원동관(E102)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등록금 3% 교육환경개선의 활용방안과 과교육환경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

심야의 필사적 등교

○... 요즘 학생회관을 철용성(?)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데,

밤12시엔 서터문을 닫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밤늦게 술에 취들린 학생들이 잠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캠퍼스까지 학생회관내로 진입하려고 해 급기야 창문에 쇠질 망을 설치했다.

이제서야 한시를 놓게된 수위아저씨 "지방대 학생회관에 불까지 나는 마당에 술만 먹으면 애교까지 없는 학생들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가꾸면 낙원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관심 한번

영험높은 부처님 기대

○... 명진관 앞 불상중수공사가 지연되면서 교내경관의 경이 자연스런 교내경관의 하나가 돼버렸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된 불상중수공사가 애초에는 대등에 맞고 주저하게 한다고. 이를 본 한 학우 왈 "대기만성이라, 불편을 견디다보면 영험 높은 부처님 되시겠소."

구멍을 막읍시다

○... 본교 후문 옆 모 레스토랑 골목길에는 학생들이 뚫어놓은 제4의 교문(?)이 있는데...

선·후배와 한잔 걸친 후에 갈 곳이 없어 학교로 들어 가려는 학생들이 그런 짓을 한것은 분명 잘못이긴 해도 구멍이 뚫린 것은 학교 당국의 관리도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에 본 회전부대차 왈 "그 제4교문(?)이 학생들이 들락거리는 좋은 용도로만 쓰인다면 모르지만, 외부인이 들어와서 성폭력, 강력범죄 등의 소란을 피울까 겁나네요."

근로요원 야유회

총대주최로 청평에서

제24대 총대의원회(의장=김성원·정외4)는 본교 환경미화원, 기능직원, 수위아저씨들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코끼리 야유회'를 지난 26일 총학, 학부위원장 등으로 정평유원지에서 개최했다.

이번 야유회는 지난 목욕대동제(20일~22일)기간중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로간 일정상의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기됐는 것이다. 이날 야유회를 통해 학생, 학교측은 서로간의 공감대형성과 유대강화를 한층 높이는 한편, 지금까지 학내 환경미화 및 건물관리 등 학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온 기능직 근로요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원 등투 마무리

3% 이하액 장학수혜·환경개선에 쓰기로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석사3)는 지난 19일 등록금투쟁과 관련한 최종요구안(4월초 요구안)을 소속 수경한 합의를 대학원 당국측에 전달, 대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등록금투쟁을 마무리짓고 총장과의 합의서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대학원 학생회측은 이날 합의를 통해 '92년도 등록금 인상율을 19%에서 16%로 인하 스쳐에 3%(2천만원 상당)는 현재 50명인 원생장학생을 15명이 추가된 65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나머지 액은 전산실과 원생연구실 환경개선에비

우리의 현대 세계의 현대

HYUNDAI

밖에서 벌여 안을 살찌운다.

現代의 금년 外貨 획득 목표 - 120억달러

적극적인 추진력과 창조적 의지로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現代 우리 現代는 국가번영과 국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밖에서 벌여 안을 살찌우는 경영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을 개척하고 있는 現代는 상품과 건설, 해운, 용역수출로 올해 120억달러의 외화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現代

